

분단의 벽은 학부모들의 통합교육 열망에 의해 무너질 수 있었는가? -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운동에서의 학부모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강순원**

요약

본 논문은 북아일랜드 평화체제 정착과정에 기여한 학부모들의 통합교육운동에 관한 내러티브분석의 결과이다. 현재도 설립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7명의 이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격, 추진세력의 동향, 학교운영의 목적과 지향성 등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고 그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북아일랜드 학부모주도의 통합교육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첫째, 종파적 분리주의에 근거한 학교교육 분단화로 인해 북아일랜드 학교교육은 북아일랜드 분단체제를 정당화하고 견고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적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통합교육운동은 학부모주도의(parents-led) 시민운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은 분단극복의 평화교육 운동이다. 둘째, 자발적인 통합학교설립운동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통합학교를 국가 교육섹터로 위치 지우고 전액 국가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중산층주도의 교육운동이라는 계급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셋째, 참여 학부모들은 통합학교설립을 매개로 진정한 평생학습자로 스스로를 성장시켜가면서 지역을 변화시켰다. 그런 맥락에서 북아일랜드의 통합교육운동은 분단장벽을 걷게 하는데 자기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의 자기실현과 사회변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통합교육 학부모운동은 교육이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단 장벽을 뛰어넘은 북아일랜드라는 분단사회의 평화교육적 성격을 지닌다.

주제어 : 북아일랜드 통합교육, 학부모주도 교육운동, 분단사회 평화교육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교육사회학 전공, kangsw@hs.ac.kr

I. 서론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은 종파적, 계급적, 성차별적 교육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운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화를 위한 평화운동이자 종파적 분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으로 평가된다(Brewer, 2011; Duffy, 2000; Thompson, 2006). 지금은 그 강도가 아주 약화되었지만 필자가 북아일랜드 방문을 시작할 즈음 통합교육은 북아일랜드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당한 방향으로 평가될 정도였다(강순원, 1997). 이후 통합학교관계자를 만나거나 학교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요지가 통합학교 형성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학부모들의 열망과 추진노력이라는 점이다. 즉, 자녀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폭력적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랐고, 지역 사회분단과 교육적 분리주의의 근원인 종파적 분리주의 학교가 아닌 통합학교를 자기 지역에 세우기를 원하여 그들의 희망과 노력으로 오늘의 통합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Mcaleavy, Donegan & O'Hagan, 2009). 그래서 모든 통합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에는 반드시 초기 학교설립에 참여했던 학부모(founding parents)나 그들이 만든 재단(trust)의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면서 누가 그 범주의 위원인지를 꼭 보여준다. 이것을 이해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해한 후에는 왜 이들이 '나의 학교, 내 아이(my school, my baby)'라고 하는지 그 감정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도 학교설립은 국가나 아니면 민간교육 법인이 하는 것이지만 지역의 학부모들이 모여 우리 마을에 학교 짓자 해서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기존의 학교는 종파학교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합하지 않으니 우리는 종파를 초월한 통합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게 지원해라', 이런 대안적 교육활동 요구가 매일같이 폭동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지를 가진 초기 학부모들은 힘을 합해 청원하고, 공개강좌를 하고, 또 교육부에 찾아가 애원하며 기금마련을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하고, 학교건물이 없어 컨테이너 건물을 가져다 그것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폐교된 건물을 개보수하여 쓰기도 하면서 자기 학교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쪽의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설립과 이후 방향에 대해 토론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각기 다른 전통의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과 희망을 가졌다. 학교설립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소수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면서 공유된 미래(shared future)를 확신하며 만든 학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로 넘쳤다고 한다(Dunn, 1986). 1981년 첫 통합학교인 라간 콜리지(Lagan College)가 설립된 이래 대부분의 통합학교가 지역사회에 잘 안착한 반면 현재까지 한 개의 학교만이 폐교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북아일랜드를 드나들면서 가졌던 통합학교 관련 질문을 2년 동안의 집중연구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설립주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의문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갔다. 왜 통합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였는가? 이 지역에 왜 새로운 통합학교가 필요했는가? 학교설립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였

는가? 자기 자녀들을 위한 대안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비용을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교육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합교육학교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는가? 이 학교만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것이 공고화되는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통합학교 간의 상호교류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합학교의 교육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북아일랜드 정부는 통합교육을 법제화하고도 왜 종파학교의 압력에 휘둘러 결국 통합교육확대를 주저하는가? 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도 발전한 통합교육이 오히려 갈등 후 사회라는 오늘날 더 더디게 진행되고 오히려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35년이 지난 지금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운동의 정치사회사적 의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동안 만난 통합교육관계자들은 학교장을 비롯하여 50명이 넘지만 그 중에서 연구대담자로 본 연구에 관여하게 되는 사람은 1970-80년대부터 통합교육운동을 주도하고 학교설립에 관여했으며 지금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역 평생교육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설립학부모(founding parents) 7명으로 제한했다. 그들은 모두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데 동의했고 인터뷰하는 과정 내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팸플릿 등 관련 자료를 기꺼이 제공하였다. 그와 더불어 관련 학교 방문을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6년 1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인터뷰는 학교나, 그들의 집, 카페, 혹은 NICIE(Northern Ireland Council of Integrated Education, 북아일랜드통합교육협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담자는 다음과 같다.

이름	설립학교/연도	직업/현재활동
어윈Eoin	Hazelwood Integrated College, 1985	얼스터대학 교수_퇴임
세실Ceciile	Lagan College, 1981	ACT창간멤버 치과의사_퇴임
안Anne	All Childrens' Integrated Primary School, 1986	여성운동가/ 지역사회 통합운동
탐Tim	Oakgrove Integrated Primary School, 1991	공무원_퇴임
버니Bernie	Oakgrove Integrated College, 1992	사회복지사_퇴임
에릭Eric	Drumragh Integrated College, 1995	Omagh 초등통합학교장_퇴임
톰Tom	Enniskillen Integrated Primary School, 1989	Erne Integrated College 교장_퇴임

연구방법은 기억과 자료에 의한 내러티브이다. 이들은 말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다. 이들의 내러티브가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료들의 다른 자료나 인터뷰를 통해 점검하는 삼각기법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II.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의 역사적 함의

아일랜드는 AD400년경 St. Patrick이 기독교를 정착시킨 이래 셀틱 기독교가 발전해왔다. 섬나라인 아일랜드는 해상강대국인 영국, 스페

인을 비롯하여 바이킹문화의 영향도 받아왔지만 전반적으로 가톨릭 문화에 지배되어 있었다. 하지만 영국왕 헨리8세가 성공회를 중심으로 종교지형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9년 전쟁(1594-1603)이 일어났고, 승리한 잉글랜드는 잉글리시와 스코티시들을 아일랜드로 이주시켜 식민사업과 함께 반가톨릭·앵글리칸 종교의 확산에 경주하였다. 이러한 식민화과정은 가톨릭에 근간한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지배계급 구조를 와해시키고, 특히 스코틀랜드와 가까운 얼스터지역(오늘의 북아일랜드)에 처치 어브 아일랜드와 프레스비테리안(장로교)과 메소디스트(감리교) 등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을 편성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1921년 분단 후 가톨릭-아이리시 내셔널리즘 대 개신교-영국 유니온니스트의 대결구조를 가져왔고 특히 가톨릭 기반의 북아일랜드 독립=아일랜드로의 통일지향운동은 IRA(Irish Republican Army, 아일랜드공화군)의 이념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유니온니스트 민병대는 선조들이 일군 이 땅은 영국의 일부라는 명분을 가지고 반IRA활동에 주력하였다. 1949년 완전 자유국가로 독립한 아일랜드공화국과 국경이 그어진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이리시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IRA와 신교기반의 유니온니스트 민병대(para-militaries)간의 내전이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분쟁기(the Troubles, 1968-1998)로 이어진다(Millan, 2009).

폭발과 죽음, 아우성과 공포로 가득찼던 분쟁기 동안에 북아일랜드내의 피해규모를 보면 사상자만도 10만 명을 넘는다. 1968년부터 1998년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3,466명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7명이나 있고 여성도 321명에 달한다. 사망자 중 민간인 비율이 50%를 넘는다. 1969년 이래 2007년까지 영국군은 총30만 명

이 주둔했었으며 영국군도 505명이나 사망했고 30,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 때 영국군인에 의한 희생보다 민병대의 공격에 의한 희생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은 양 진영 간 갈등과 반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북아일랜드 인구가 약 12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10명 중에 1명꼴로 피해를 입고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유럽의 오지로 평가될 정도였다. 실업률은 거의 80%에 육박했고 젊은이들은 다 떠났다(McKittrick & McVea, 2012).

폭력은 응징을 낳고 응징은 또 다른 응징을 낳는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급기야 1976년 8월10일 영국군대에 의해 총을 맞은 IRA사람이 몰고 돌진한 차에 치여 벨파스트 시내 개신교주거지의 어린아이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가족과 친지들은 죽음의 고리를 끊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자는 평화동맹peace rallies을 이어가자고 절규하였다. 이어 '평화의 사람들peace people'이라는 집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호소는 퍼져 나갔다. 이를 주도한 베티 윌리엄스와 코리건 맥과이어가 그 해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면서 북아일랜드 이슈가 또 한 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폭력종식의 목소리는 이후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평화운동의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평화의 사람들'이 지향한 아이들을 살리자는 평화운동은 자연스럽게 종파적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학부모들을 결집시키면서 1972년부터 일고 있었던 "모든 어린이들을 다함께(All Children Together, ACT)" 교육운동은 한층 고양될 수 있었다.

구교계와 신교계가 따로따로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적대적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을 함께(ACT)'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가톨릭학부모들이 1972년부터 통합교육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파적 분리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학교들이 통합교육에 대해 거세게 저항했다. 심지어 데니스 폴 신부는 통합교육을 '영국의 더러운 정치적 술수(UK dirty political trick)' 라며 가톨릭계의 단결을 호소했고 개신교측 역시 종교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Dunn, 1986). 학부모들은 정계에 호소하고 청원하며 교육이 달라져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살게 할 것인가, 세계가 달라졌다면 바로 이웃을 보고 우리도 바꾸자고 설득했다(Bardon,

Declaration of the Peace People 평화의 사람들 선언

우리는 이러한 평화운동으로부터 세계에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희망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원했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엄청난 헌신과 노력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함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사회에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폭격과 방화가 그러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폭격, 방화를 비롯한 폭력의 사용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빚어지는 이와 같은 비극이 나쁜 기억으로 남고 계속 경고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과 매일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더불어 헌신하고자 한다.

2009).

당시 영국정부는 이미 11세 시험의 폐지를 공약으로 한 교육개혁에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Halsey et al, 2012) 모든 능력의 어린이가 함께 라는 선발고사폐지를 환영했고 또한 종파적 분리주의에 근간한 학교를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한 학교로 통합한다는 교육이념이 국제적인 흐름과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환영했으나 북아일랜드 의회는 입장이 달랐다. 정치권은 철저히 종파주의적 이해집단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했다. 아일랜드 역시 가톨릭에 근거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함께 교육을 Educate Together 운동이 시작되었던 터였다(Drudy & Lynch, 1993). 1970년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이러한 교육변화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교육의 정치적 환경은 훨씬 더 수구적 입장으로 고착되었다. 종파주의에 기반한 테러와 방화 및 일상의 공격은 학교교육 자체를 더욱 더 기존 질서에 편입하게 만들고 있었다. 학교교육을 바꾸자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적의 편에 편입한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정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Dunns & Morgan, 1999).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행히 1978년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의 어린이들이 다함께 교육하자는 던리쓰(Dunleeth) 법안이 웨스터민스터에서 가결되었으나, 그 해 스톤먼트의 북아일랜드 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기존의 지역학교를 종파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하도록 개혁한다는 ACT의 교육철학은 분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종파학교의 비타협주의와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불가능해졌다(Pickett, 2008; Smith, 2001). 이러한 북아일랜드 환경에서 통합교육의 방향이 옳다면 이제는 그런 학교를 신설하는 길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던리쓰법에 따라 기존 학교를 통합학교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자 통합교육개혁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우리가 라간을 먼저 만들고 이를 인정하는 grant-maintained로 가려고 하자 그 때에서야 교육부는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84년에 라간에 지원을 결정하고는 이후엔 그 틀에 따라 통합학교를 하겠다고 했다. 즉 북아일랜드 교육제도를 통합교육의 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청원하여 요건을 만들어오면 그 통합학교를 인가하는 형식으로 나갔던 것이다. /세실

통합학교 신설과정에 참여한 주도세력이 상대적으로 용기있는 중산층 학부모들이었다는 비판이 있지만(O'Conner, 2002; Tell, 1999), 당시 북아일랜드의 반통합교육 환경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후 신설통합학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원을 받게 되면서 계급적 편향성을 띠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Gallagher, Smith & Montgomery, 2003). 라간 설립과정엔 ACT 멤버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전환해야 북아일랜드에 평화가 있다고 주장한 Alliance 정당대표인 던리쓰 의원을 비롯하여 교육부장관인 맥가이버 의원 등도 참여했다. 다양한 능력과 신장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이 다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an integrated, all-ability education) 학교인 라간에는 28명의 학생이 첫 등록자였는데,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라간은 1,200명이 넘는 대형 콜리지로 발전했다(www.lagancollege.com). 1981년 설립 이후 초기엔 통합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종파주의 학교의 반발로 4년 동안 그 이상의 통합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4년 벨파스트통합교

윅트러스트(BELTIE)가 발족되면서 북벨파스트에 헤이즐우드 초등학교와 콜리지가 세워지고 남동쪽에 포지초등학교가 각각 1985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3개가 더 세워져 7개의 통합학교가 설립되자 이러한 통합학교를 관장하고 신설을 지원할 중앙기구로 북아일랜드통합교육 협회NICIE가 1987년 설립되었다. 이후 영국교육법(UK Education Act)의 개혁과 나란히 1989년 개정된 북아일랜드 교육법령(NI education order)을 통해 통합교육의 장려가 성문화되었고, 법적으로 통합학교는 국가지원을 받게 되었다.

북아일랜드 분쟁기 동안의 평화를 향한 교육적 고투는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EMU)과 통합교육운동으로 모아진다(강순원, 2003: Dunn & Morgan, 1991). 비록 서로가 다른 종파학교에 다니지만 같은 지역사회에서 종파학교의 벽을 넘어 아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면 미래사회의 같은 시민으로서 편견이 극복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EMU와 함께, 통합교육운동은 사회적 폭력의 근원인 종파적 분리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아이들을 한 학교에서 함께 배우게 하여 분열의 씨앗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는 비폭력적 평화교육을 지향한다(강순원, 2015). 실제로 벨파스트평화협정에서는 "화해와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 화해과정의 본질은 ... 통합교육이나 혼합주거(mixed housing) 등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포함하여 관용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며 통합교육의 평화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교육은 지역사회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두 종교집단 사이의 분리가 그대로 반영된 사회

적 시스템이다(Smith, 2001). 주거공간이 종파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학교 역시 종파학교로 분리되었다. 종파적 분리교육을 통해 두 집단의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불관용을 학습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주입받는다. 아이들은 사회적 관습과 역사에 의해 학교를 선택해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분리되어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강화되어 다른 진영에 대한 적대자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고 이것이 상대 집단에 대한 혐오범죄로 이어져도 이런 것들이 사회통념상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분단화가 극복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분단화를 해체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전제해도 과언이 아니다(Abbott, 2010).

이런 맥락에서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한계와 성과들이 갈등과 분단의 사회에서 화해와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III. 통합교육 형성과정에서의 학부모 주체론

1974년 학부모들이 시작한 ACT는 북아일랜드 교육구조를 통합교육이념의 틀로 변혁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직접 통합학교 만들기로 전환하여 1981년 라간 콜리지를 설립하였다. 이후 통합교육운동은 사회통합운동과 연동되어 현재까지 63개의 초중등학교, 전체 학교의 약 7%가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www.nicie.org). 종파적 분리주의에 근거한 북아일랜드 교육방향을 비

폭력, 관용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교육철학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전 사회의 평화운동진영과 함께 한 통합교육운동은, 각기 평화교육운동으로(McGlynn, 2004), 분단극복운동으로(Gallagher, 2005) 비폭력교육운동으로(Donnelly, 2004), 지역사회협력 교육운동으로(Hayes & McAllister, 2009), 오늘날 분단극복 시민교육으로(Abbott, 2010: Wylie, 2004) 평가되면서 다른 목소리로 존재를 알린다.

1.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분단을 넘어 평화로

북아일랜드에 오면 아직까지도 상위 그라마 스쿨이 어디어디고 그것이 가톨릭학교인지 개신교학교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학교운영비를 국가에서 100% 지급하는 데도 가톨릭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교육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가톨릭가정의 90% 이상이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개신교 가정의 90%이상이 개신교 학교에 다닌다(Duffy, 2000). 지역사회도 예를 들어 벨파스트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보자면, 동은 주로 개신교 노동계급이, 서는 가톨릭 노동계급이, 남은 개신교 중산층과 일부 가톨릭 중산층이, 북은 가난한 지역으로 양진영이 섞여 사는데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과 폭격이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물론 큰 싸움은 지역을 안 가리고 언제 어디서고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폭력적 대립이 극심했던 1968년에서 1998년까지 30년, 즉 한 세대에 걸쳐 그 피해는 갓난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전 사회에 파급되었다. 이 때 민간인 희생자들 절반이 벨파스트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1971년에서 77년까지 해마다 수백 명이 폭격으로 숨졌다. 여성들도 총을 들었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총을 들고 싸웠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내 가족을 죽인다. 그러니 적을 죽이는 것이 내 민족을 위한 애국주의적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서로 분단된 지역사회에서 종파적 분리주의 학교를 통해 더욱 더 심화시켰다.

나는 1952년 벨파스트 산킬로드에서 태어나서 잠시 캐나다에서 살다가 1965년에 다시 돌아와서도 산킬로드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이 개신교라 1969년에 개신교 여학교, 당시는 남녀공학이 없었습니다. 예 다녔는데, 학교를 오가다가 펄스 로드에서 오는 가톨릭 학생들 간에 매일 싸움이 일어났어요. 당시 특히 그 지역상황은 최악이었지요. 산킬과 펄스는 도로 하나를 두고 가톨릭 지역, 개신교 지역이니 버스를 탈래도 마주치고 시장을 가더라고 마주치는데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늘 티격태격했죠. 그게 문화였어요. 괜히 화가 나고 싸워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 환경에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가 가톨릭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되었어요. 캐나다하고는 너무나 문화가 달랐고 왜 이래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 사는 건가요? 아휴... 1972년에 나는 캐나다를 여행하고, 남자친구는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 남자친구의 집에 개신교사람들이 총격을 가하였어요. 16살 동생이 총을 가까스로 피하여서 죽음은 면했으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그 길로 바로 다음날 온 식구들은 무서워서 시골로 이사했답니다. 안 Anne

당시 지역 상황은 가톨릭=아이리시 내셔널리스트 대 프로테스탄트=영연합 유니온니스트로 나뉘었고 학교는 종파별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초등은 가톨릭여학교와 남학교, 프로테스탄트 여학교와 남학교로 나뉘어졌으나 중등, 여기서는 포스트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11세 시험결과를 가지고 그라마로 진

학하는 사람과 그냥 세컨더리 스쿨로 가는 그룹으로 나뉜다. 그러니 가톨릭 그라마 여학교, 가톨릭 그라마 남학교, 가톨릭 세컨더리 여학교와 가톨릭 세컨더리 남학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그라마 여학교, 프로테스탄트 그라마 남학교, 프로테스탄트 세컨더리 여학교, 프로테스탄트 세컨더리 남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파별, 성별, 능력별 분절화가 북아일랜드 교육제도의 특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 영국 4대 왕국 중 북아일랜드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차별화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Gallagher & Smith, 2001). 이것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교육제도가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함에는 틀림없다고 믿은 소수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폭력을 줄이기 위해 성격이 다른 학교를 만들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Mcaleavy, Donegan & O'Hagan, 2009). 1970년대 영국이나 아일랜드 교육개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북아일랜드 내 교육분단화의 문제를 자녀교육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학부모들이 모여 공부하면서 만든 단체가 ACT였다(Bardon, 2009).

저희는 남편과 저 둘 다 가톨릭이었습니다. 저희는 홀리우드에서 살면서 자녀를 가톨릭학교에 보냈는데 너무나 엄격하고 교리가 답답해서 아이들도 엄청 힘들었고 저희도 불만이었습니다. 거리도 멀었고. 사실 근처에 좋은 감리교 학교가 있었고 목사님도 좋았는데 저희가 가톨릭이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직장 일을 하는 바쁜 사람이었지만 아이들 문제에 관한 한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동네(뱅크어)에 교육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베티를 만난거죠. 베티덕분에

저도 확 깨었고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홀리우드나 뱅고어가 벨파스트 근교 중산층 지역이어서 개인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도 있었지요. 그래서 거의 매주 만나 우리 강령도 만들고 향후 전략도 세우고 했는데 아마도 베티가 잉글랜드 경험이 있어서 통합교육이념을 가져오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봐요. 전 더블린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는 알고 있어서 Educate Together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지만 워낙 그 당시엔 진척이 없던 터라 같이 함께 할 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었고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 측 협력을 얻어내기 쉬웠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처음엔 분명 가톨릭학부모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이후엔 거의 같은 비율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1세 시험 폐지를 노동당이 주도하여 성과를 얻고 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합교육은 종합학교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엔 두 종파간의 대화와 협력, 상호이해 이것이 사회적 분열의 온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선발원칙 뿐만 아니라 종파 학교에서 따로따로가 아닌 한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 세실

ACT의 핵심은 베티 벤튼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베티는 "아이들-우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평화나 화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내일의 시민이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처럼 분리되어 성장한다면 어떻게 하나의 지역사회, 하나의 공민이 되겠는가?"라며 통합교육 없이는 북아일랜드의 미래도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Bardon, 2009 재인용). 통합교육이야말로 총과 칼이 아닌 비폭력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ACT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엔 공유된 미래shared future를 위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이념이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믿었기에 북아일랜드 의회가 이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976년 앤 맥과이어 자녀 사망사건은 학교교육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통합교육운동에 적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종파학교가 주류인 지역 환경에서 아이들은 종파별 이념에 따라 가톨릭은 가톨릭 민족주의자로서의 길로,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 유니온니스트의 길로 사회화되었고 그 아이들은 각 진영의 미래전사로서 준비하도록 양육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피해는 계속 증가했다.

난 원래 여기 퀸스 출신인데 졸업 후 잉글랜드로 가서 취업해서 살았다. 아이들이 넷인데 1973년 이곳 엔지니어로 와달라고 해서 왔다. 여기 폴리테크닉이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 그냥 자리잡았는데 살다보니 너무나 우범지대였다. 아이들은 다 그라마 스쿨로 진학을 했는데 나갔다 돌아올 때면 늘 버스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렸다 데려와야 되었다. 이런 환경이 끔찍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때 라간이 생겼다. 라간을 보내려고 갔더니 대기자가 너무 많고 지역에서도 보내기가 멀어 우리도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의견을 모았고 준비모임을 했는데 그 때 BELTIE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다. 학부모들도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안한 것이 없다. /어윈

라간이 위치한 남벨파스트가 중산층지역이라고 본다면 헤이즐우드
가 위치한 북벨파스트는 가난한 노동자계층 지역으로 늘 불안한 갈
등지역이었다. 여기서 가난한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아이들
은 다른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학부모들에 의해 이른바 민중적
통합학교인 헤이즐우드 초등과 중등이 1985년에 동시에 설립된 것이
다. 이어 1987년에는 에니스킬렌 폭탄테러로 지역사회가 패닉에 빠
진 상태에서 종파적 분리주의를 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통합교육이라고 믿고 주민들은 학교설립에 매진했다.

에니스킬렌 초등은 말도 못하게 어려웠죠. 1987년 11월에 시
티센터에서 영국군인 추모식 중에 PIRA가 폭탄을 던져 재향군
인 11명이 사망을 하자 개신교주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때 슬라이고에서 보트놀이하던 자녀 Paul을 IRA가
배를 폭파시켜 잃게 된 John Maxwell이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
나지 않게 하자며 통합학교 제안을 했죠. 이게 된 것이냐? 아
이들이 뭐 죄냐? 우리 세대로 이런 비극은 끝내자. 당시 저는
개신교 그라마학교 교사였는데 바로 합류했죠. 아내는 가톨릭
이고 전 개신교라 아이들 학교 선택의 문제가 늘 골치 아팠죠.
에니스킬렌 초등통합학교는 바로 이러한 폭탄테러 직후 이 지
역에서 평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특히 정치적 의미
가 더 크지요. / 톰

통합학교는 지역에 따라 계급기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북아일랜드
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한 특히 혼합혼(mixed
marriage) 학부모들이 주도적이었다고 한다. 북아일랜드에서 혼합혼
부부는 자녀들의 학교선택에 아주 고민이 많다. 안의 경우도 그렇고

팀과 버니도 그렇고, 톱과 에릭의 경우 모두 다 혼합혼 부부이다. 정책적으로는 혼합주거를 갈등해소의 한 대안으로 이야기 하지만 혼합혼은 개인의 선택이라 정부가 나서서 장려할만한 일은 아니다.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결혼식의 주관에서부터 가족친지들과의 관계 특히 자녀학교선택 등에서 혼합혼은 사회적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Northern Ireland Mixed Marriage Association, 2015).

블라디 선데이로 이미지화된 데리에는 의사, 회계사, 요리사, 가정주부, 실업자,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어요. 가정형편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초등학교를 보내는 젊은 부부가 중심이라 경제적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평범한 가정이고. 제가 기억하는 초기 참여자들을 보면 다 그저 그래요. 단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많은 부부가 혼합혼 (mixed marriage)으로 종교가 서로 달라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할지 고민하던 차라 통합학교는 고민이 없었던 거지요. 저희만 해도 저는 프로테스탄트고 버니(아내)는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학교를 보내야할지 개신교학교를 보내야할지 정말 고민스럽죠. 우리 아이들도 고민을 안하고 부부도 좋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는 쉬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통합학교 이외 다른 선택은 없어요. 이게 평화지요. /팀

북아일랜드에서 통합교육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정치사회적 갈등해소교육으로 비친다. 그래서 참여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통합학교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을 폭력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할 수 없다. 미래는 오늘과 다르다. 갈등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적대자상을 심어주는 종파적 분리주

의학교를 거부하고 다함께 모여 일상적으로 만나고 함께 미래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통합교육의 장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평화적인 비폭력적 문제해결 방안이다.

2. 통합교육의 국가적 책임은 당연하다

북아일랜드 교육시스템을 통합교육 이념에 맞춰 개혁하려던 방안이 좌절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위들이 개별화되었다. 그래서 1981년 라간 콜리지 설립이 가시화되었을 때 너필드 같은 비영리 재단의 후원 위에 학부모들이 모금과 직접 충당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해 갔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통합교육을 북아일랜드 교육섹터의 하나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1989년 북아일랜드 교육법령에 성문화되면서 교사인건비를 비롯한 학교운영비 일체를 정부로부터 조달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북아일랜드에는 개신교계의 Controlled school, 가톨릭계의 grant maintained school, 그리고 비종파적 integrated school, 마지막으로 교수언어를 아이리시로 하는 Irish medium school 등의 섹터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100% 지원을 받는다 (www.education-ni.gov.uk).

이 지역은 특히 실업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니 종교적 분리주의가 더 극성을 부렸다.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이념을 가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칫 더 극단화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끊임없는 싸움, 큰소리, 상징적 국기 등이 난무했다. 결국 거리를 두고 한쪽은 개신교 유니온니스트, 다른 한쪽은 구교 내셔널리스트, 이렇게 나뉘는 판국

에 내 처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살던 런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했다. 거기도 가난한 지역은 마약이 들끓어 아이들을 거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가장 컸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기에 나는 우리 시대로 이러한 분열을 끝내고 싶었다. 가능하면 빨리. 그래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통합교육운동에 매진했다. 당시 나는 소위 엘리트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역할이 주어진 것 같다. 라간과 달리 나는 처음부터 이곳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비를 내지 않고 non fee paying 다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점이 다른 지역의 통합학교운동과 다른 점이다. 우리는 가난한 지역이기에 단체들의 도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고 주민들도 라간이 중산층 운동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힘을 합쳐 지역의 무상 통합학교로 설립하자라는 취지에 찬동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신나는 일이다.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 어윈

이러한 민중적 통합학교 설립이 가능했던 것도 초기 중산층 주도의 통합학교설립이 성공했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아동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을 성문화했기 때문이다. 자칫 교육비를 내는(fee-paying) 민간교육활동으로 규정될 수도 있었을 통합교육운동을 제도적 틀로 안착시킨 힘이 바로 학부모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교육부에 달려가 로비도 하고 시위도 하고 때론 협조도 하면서 결국 통합학교를 하나의 공식적인 교육섹터로 안착시켜 지금은 누구나 통합교육이념을 존중하면 다 입학할 수 있는 학교로 열어 놓았다. 오늘도 통합학교를 만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학

부모 선택권이다(Mcaleavy et., 2009).

이곳은 특히 가난한 지역이어서 우리는 시작부터 무상교육을 강조했고 그것은 일관적인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달리 한다는 것도 아니다. 국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공생 교육을 하자는 취지인데 왜 학부모들이 별도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가? / 어윈

가난한 소위 우범지대인 북벨파스트의 헤이즐우드뿐만 아니라 오마 역시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은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통합교육이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단지 종파적 분리주의 학교들의 눈치를 보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을 꺼려할 뿐이다.

오마 역시 대부분 우리 같은 혼합혼의 젊은 부부들로 10-12명이 처음 모여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에텔과 알리스터가 있었고. 그들이 자녀들도 보냈고 학부모로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로 우리가 행운이었죠. 제1대 교장인 모린 바클러와 두 명의 교사가 부임하게 되었죠. 모린이 처음 부지가 선정된 장소를 가보니 텅 빈 들판에 말 한 마리가 서 있더라고요. 6주 후엔 완전히 바뀌어 거기다 가건물 두 채를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게 한 거죠. 알리스터가 워낙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 컨테이너를 들여오고, 가구를 옥션에 가서 싸게 사오고, 필요한 급식은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어 갔죠. 처음 33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이제 334명의 비교적 큰 학교로 성장했고 평판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

만 보시다시피 아직도 가건물입니다. 정부가 학교건물을 지을 예산을 주질 않아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 데도 말입니다. 이게 다 종파학교 우선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를 개의치 않아요. 통합교육이 중요하지 시설은 이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 에릭

대부분의 특히 초등통합학교의 경우엔 대기자가 아주 많다. 라간이나 헤이즐우드, 드럼라, 쉽나 등 통합콜리지들도 대기자가 아주 많다. 라간은 현재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콜리지 중 하나이다. 현재 북아일랜드 학부모들의 학교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통합학교에 보내겠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직 7%의 학교만이 통합학교이다. 실제 학부모선택권을 이야기하지만 북아일랜드 정치권이나 교회는 여전히 종파적 분리주의의 수혜자들로 통합교육 의미나 성과를 부정하고 있다(강순원, 2015).

3. 학부모들 평생학습자로 거듭나다

1970년대 북아일랜드 상황에서 통합교육개념을 창안하여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킨 집단은 교육부관료도 아니고 교육학자들도 아니고 정치가들도 아니었다. 아이들의 문제를 염려하던 지역의 이른바 아줌마들 모임이었다. 이들은 동네에서 만나 자녀들의 이야기와 주변의 종파적 분리주의 학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합교육개혁이나 Educate Together 운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모형을 북아일랜드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정치적 세력화한 개념이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이다.

1970년대 당시 북아일랜드 오피스(NIO)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영국정부는 강하게 통합학교로 전환시키려 했는데 그럼에도 북아일랜드 의원들이 반대하여 못하게 되었지요. 당시 국제적 환경은 통합교육이나 종합학교에 우호적이었어요. 잉글랜드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통합교육에 우호적이었던 데 반해 가톨릭은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었고 가톨릭에 비해 신교측 협력을 얻어내기 쉬웠던 측면도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11세 시험 폐지를 노동당이 주도하여 성과를 얻고 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합교육은 종합교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영국은 11세 시험 폐지가 중요했겠지만, 우리의 경우엔 조기선발고사 폐지와 더불어 두 종파간의 대화와 협력, 상호이해 이것이 사회적 분열의 온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 세실

초기 주창자들이 중산층 지식인들로 세계적 동향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10여 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북아일랜드 모형으로 정책된 통합교육의 진정성이 수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잉글랜드 출신인 제게 통합교육은 잉글랜드의 종합교육과 일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통합교육은 분단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념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종파적으로도 분단되었고, 남학교와 여학교로 분단되었고, 그라마와 세컨더리로 분단되었지요. 이 모든 분단을 극복하자고 하는 개념이 통합교육입니다. / 팀

북아일랜드의 통합교육의 특수성은 시대적 소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학교운영방안으로 발전시킨 세력이 바로 학부모들로 이들은 끝없이 공부하였다. 그리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학교를 새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 때문에 준비위가 중심이 되어 1991년 Foyle Trust를 만들었고 이것은 이후 콜리지를 만들고 ... 재단에서는 재단 몫 학운위 6명을 파견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책임 하에서 설립학부모들을 지금까지 계속 학운위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요. 저는 학교준비위부터 지금까지 관련 기록을 모두 모아 파일링 해놓고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막히면 옛날 기록을 찾아보고 결정하지요.

사실 학교 부지를 찾아서 구입하고 학교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교사임용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학교 부지를 찾아 50군데 이상을 돌아다녔고/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모형을 만들어 발표도 했지요. 다들 환호하며 정말 그렇게 하자고 좋아했고 이것은 현실화되었어요. 초기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만 의견을 모았는데 이후엔 학교운영을 위해 다함께 늘 모여 공부했지요. 다른 학교가 잘한다 그러면 다들 모여 견학도 갔어요.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다 같이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도 하게 했지요. 그러다보니 이제는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가 되었어요. 이게 안타깝지요. 우리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크그로브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 버니

이렇게 초기 학교를 만들어 놓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졸업한 후 지역위원 남아 계속 관여를 하기도 하지만 확대된 교육활동가로 살아가는 평생학습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아이가 학교 다닐 때에는 올 칠드런스를 세우는 데 혼신을 다했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 여성운동가로의 삶을 시작했어요. 6,70년대에 비하면 북아일랜드의 오늘은 놀라운 진전을 했지요. 여정으로서의 평화, 이 길을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함께 가자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평화협정은 북아일랜드 갈등을 평화로 풀겠다고 천명한 것이어요.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보니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치적 지분, 고용 등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지 통합교육의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성 쪽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 거기(평화협정 문구)에 통합교육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엄청 싸워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지요. 이것도 제가 성인으로 실천하는 통합교육입니다. 전 지금 Small Wonder Child Center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아일랜드 갈등의 핵심인 산킬과 펄스 사이에 있어요.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고 상처받은 가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 안

IV. 결론: 분단의 벽은 무너졌는가?

대답은 'yes and no'이다. 통합학교 안에서는 종파적 분리주의의 벽

을 허물었지만, 학교 밖은 여전히 분단의 벽이 그어져 있다. 통합교육이 분단극복의 한 평화적 도구가 되어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분단체제의 구성물인 학교의 종파성을 변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에는 통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희망적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종파적 분리주의에 근간한 심볼리즘은 여전히 사회적 일상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특히 교육적 분리주의는 평화협정 이후 더욱 고착되어 평화협정에 향후 교육적 지향점으로 제시된 통합교육운동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Hansson et al., 2013). 오히려 통합교육은 비현실적이라는 정치권의 포기선언에 망연자실한 초기 주창자들의 탄식을 듣게 된다.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불평등은 종파적 분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온전치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이후의 현실은 종파적 분리주의 학교가 주도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통합교육의 이상과 영향은 수적 정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고하다.

북아일랜드에서 통합교육운동은 단순한 학교개혁운동이 아니다. 분단사회를 넘어서자는 평화의 도구로서 교육의 사회변혁적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내 자녀의 미래가 곧 북아일랜드의 미래라는 생각에서 동네 학부모들이 주도한 아이 살림의 열망이 통합교육운동을 이끌어 온 것이다. 학부모 기층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추동에 의한 민중교육으로서 통합교육운동은 이런 까닭에 쉬이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공유교육에 의해 도전받는 통합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 역시 참여 학부모들의 의지로 결정될 것이다(Connolly et al., 2013).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학부모들이 사회변혁의 촉진

자로서 평생학습자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학교제도를 공부하고, 지역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강연(public meeting)을 추진하고 강연자로 나서 통합교육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촉진자로서 평생학습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분단극복은 바로 이러한 자기변화를 수반할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1997년 발표된 '함부르크성인교육선언' 14항은 북아일랜드 학부모운동이 성인평생교육의 중요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의 문화와 교육.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 분야 중의 하나는 폭력의 문화를 퇴치하고 정의와 관용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평화의 문화 안에서는 가정과 공동체를 비롯한 국가 간에서 대화와 상호인정 및 협상이 폭력을 대신할 것이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실현 등은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평생교육 과제이자 국제이해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UIL, 2010). 그런 의미에서 북아일랜드 학부모 주도의 통합교육운동은 분단체제 극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 평화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순원(1997). Corrymeela Community활동을 통해서 본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의 실제, **신학연구**, 38집, 33-55.
- 강순원 (2003).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과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의 상관성 - 상호이해교육(EMU)에서 민주시민교육(CE)으로. **비교교육연구**, 13(2), pp. 221-244.
- 강순원(2014). 북아일랜드 토래조정활동의 평화교육적 의미. **국제이해교육연**

- 구, 9(1), pp. 1-36.
- 강순원(2015). 분단극복을 위한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비교교육연구**, 25(6), 79-100.
- 전우택(2016). **북아일랜드 스토리텔링과 치유**. 사회적 트라우마와 인간치유 KPI포럼 발표문.
- 황익주(2003). 북아일랜드의 민족갈등과 일상에서의 타자성 경험. **비교문화연구**, 9(2). 3-38.
- Abbott, L.(2010). Northern Ireland's integrated schools enabling inclusion: A new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4(8), 843-859.
- Bardon, Jonathan(2009). *The Struggle for Shared Schools in Northern Ireland: The history of All Children Together*. Belfast: Ulster Historical Foundation.
- Brewer, J.(2011). *Civil Society and Peace in Northern Ire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onnolly, Paul, Purvis, Dawn & O'Grady, PJ(2013). *Advancing shared education*. Report of the Ministerial Advisory Group.
- Donnelly, Caitlin(2004). Constructing the ethos of tolerance and respect in an integrated school: The role of teacher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0(2), 263-278.
- Drudy, S. & Lynch, K.(1993). *Schools and Society in Ireland*. Dublin: Gill & Macmillan.
- Duffy, T.(2000). Peace education in a divided society: Creating a culture of peace in Northern Ireland. *Prospects*, 30(1), 15-29.
- Dunn, S.(1986).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Northern Ireland conflict. *Oxford Review of Education*, 12(3), 233-242.
- Dunn, S. & Morgan, V.(1999). 'A fraught path'-Education as a basis for developing improved community relations in Northern Ireland. *Oxford Review of Education*, 25(1-2). 141-153.
- Gallagher, T., Smith, A. & Montgomery, A.(2003). Integrated education in Northern Ireland. report 1 & 2 & 3. University of Ulster UNESCO Center.
- Gallagher, T.(2005). Balancing difference and the common good: Lessons from a post conflict society. *Compare*, 35(4). 429-442.

- Hansson, Ulf, Bones, Una O'Connor & McCord, John(2013). *Integrated education: a review of policy and research evidence..* Colerain: University of Ulster.
- Hayes, Bernadette C. & McAllister, Ian(2009). Education as a mechanism for conflict resolution in Northern Ireland.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4), 437-450.
- McAleavy, G., Donegan, T. & O'Hagan, C.(2009). Visioning new modes of integrated and shared schooling in Northern Ireland.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4(4), 539-558.
- McKittrick & McVea(2012), *Making Sense of the Troubles, A History of the Northern Ireland Conflict*, London: Viking Penguin Books.
- McEwen, A.(1999). *Public Policy in a Divided Society: Schooling, Culture and Identity in Northern Ireland*. Aldershot: Ashgate.
- McGlynn, Claire(2004). Education for peace in integrated schools: a priority for Northern Ireland? *Child Care in Practice*, 10(2), pp. 85-94.
- Millar, F.(2009). Northern Ireland: A Triumph of Politics. Interviews and Analysis 1998-2006. Dublin: Irish Academic Press.
- Morgan, V., Fraser, G., Dunn, S. & Cairns, E.(1993). A new order of cooperation and involveme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n the integrated schools. *Education Review*, 45(1), 43-52.
- Niens, U. & Cains, E.(2005). Conflict, contact and education in Northern Ireland. *Theory into Practice*, 44(4), 337-344.
- Northern Ireland Mixed Marriage Association(2015). *Both Sides Now*. Belfast: Nova.
- Northern Ireland Mixed Marriage Association, 2015
- Pickett, L.(2008). Integrated schools in Northern Ireland: Educatio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Childhood and Education*, 84(6). 351.
- Smith, Alan(2001). Religious segregation and the emergence of integrated schools in Northern Ireland. *Oxford Review of Education*, 27(4), pp. 559-575.
- Tell, C.(1999). In Northern Ireland: Schools of reconciliation. *Educational Leadership*. 56(7). 56-60.
- Thompson, J. F.(2006). Building peace one student at a time: Northern Ireland's school integr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Peace and Conflict*. 1-19.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10). *Confintea VI*.

Wylie, K.(2004).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inclusion: Lessons from Northern Ireland.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39(2), 237-248.

Abstract

Is it possible for the solidarity towards integrated education
of parents to cave in the divided wall of Northern Ireland?
- Centered on the narratives of parents involved in
integrated education movement of Northern Ireland

Kang, Soon-Won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narrative result of the integrated education movement of parents-led towards the peace building of Northern Ireland. It is the story analysis of the 7 founding parents who are still involved in BoG at each school, asking the motivation of their engagement, the characteristic of local community and the orientation of each integrated school. The NI integrated education movement concludes as such. Firstly, it is characterized as the peace education beyond the sectarian division being driven by ordinary parents in the community, because most of NI school system used to legalize and reinforce the existing divided system of religion in the society. Secondly, the NI integrated education, seen as middle class-driven educational agenda, was set up as one of national educational sectors in which the whole school running cost should be covered by the national finance and thus was open free to the all children. Thirdly, there are many parents who have become lifelong learners themselves, transforming their communities more peacefully and tolerantly on the way to school creation. As a consequence the role of parents of integrated education movement is to be evaluated as a meaningful contribution of peace process in the divided NI society by becoming lifelong learners for transforming the society. It seemed that they achieved the general goal of lifelong learning for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in the community.

Key words : *integrated education in Norther Ireland, Parents-led educational movement, peace education in the divided society*

투고신청일: 2016.10.30

심사수정일: 2016.12.03.

게재확정일: 2016.12.26